

애성이 주증상이 아닌 소아환자에서 후두질환의 소견

Laryngeal Findings in Childhood without Hoarseness as a Chief Complaints

노원을지병원 이비인후과

안철민* · 김현호 · 김희규 · 조진규

음성은 일상생활에서 표현과 대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으로, 자기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소아에서는 통증이나 배고픔, 불편함 등을 울음소리로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음성을 이용한 말은 성장과정에서 주변으로부터 듣고 이를 흉내냄으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음성양상을 갖게되는 것이고, 어린 시절 잘못된 발성습관은 후일 성인에서의 잘못된 발성양상으로 지속적인 음성질환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아에서는 후두 검사가 어렵고, 또 음성변화가 왔을 때 후두의 악성질환이 드물며 보통 저절로 잘 치유되리라는 생각에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게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애성을 주소로 하지 않은 소아환자에서 음성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후두질환의 분포와 발성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환경 및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애성이 주소가 아닌 소아환자의 40%에서 성대결절을 보였고, 평소에 빈번한 애성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36.2%의 성대결절을 보였으며, 성대결절이 있는 소아의 75%에서 과기능성 음성장애를 가진 부모가 있어 이들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